

KEA 협회 주요사업 현황 >>>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 이후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안전 등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의 진흥·문화의 창달, 공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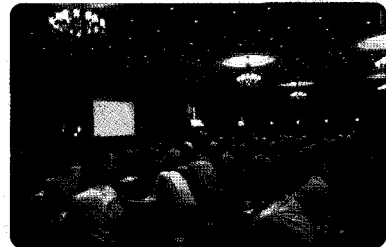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전기협회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비전 등을 주관 부서별로 소개합니다.

KEPIC처

● 주요업무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유지관리, KS원자력 국제표준 개발, 정부 정책과제 수행

□ 전력산업기술기준 유지관리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Korea Power Industry Code)은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송·변·배전분야 등 전력설비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국산화를 목표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하에 전력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발한 단체표준으로서,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 제작, 시공, 시험, 검사, 운전, 보수 등에 관한 제반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한 단체표준이다.



KEPIC은 1995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 5년 주기의 개정판과 추록을 발행하고 있으며, 2005년판은 품질, 기계, 전기, 구조, 원자력, 화재예방 등 6개 분야 총 83권 2만 4천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KEPIC은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3단계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개발된다.

또한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제도를 통하여 산업계가 KEPIC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력 설비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KS 원자력 국제표준 개발

매년 원자력 국제표준 연도별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전문가를 지원하고 원자력국제표준화포럼 및 ISO 국제표준 회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의 원자력 규제기준 채택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원자력국제표준화 워크샵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원자력 표준정보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정부 정책과제 수행

전력산업 국가표준 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제어시스템 국제표준화 사업과 ASME BPTCS 산하 여러 Committee에 대해 국내 대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표위원을 파견하여, 국내 산업계를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사업 등 정부 정책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



i n t e r v i e w ● 인터뷰

UAE 원전수출로
KEPIC 위상 한층 제고

KEPIC차장 안 호 현

KEPIC은 올해 6개 분야 40종, 3,000쪽을 신규개발하고, KEPIC 8개 분야 416종, 32,000여쪽의 2010년 개정판과 추록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KEPIC은 전력설비 표준화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기술 반영에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EPIC 적용으로 기기 공급가격이 인하되고, KEPIC 자격인증제도를 통해 산업계 인증비용도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3,4,호기의 KEPIC 전면 적용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MDEP 참여를 통한 KEPIC과 MDEP 참여국 코드간의 조화 및 이에 따른 적용 확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진 9,10호기 및 서울복합 1,2호기 등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400억 달러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주에 따라 수출원전에 KEPIC의 전면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KEPIC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원자력 국제표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원자력 국제표준화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술수준 향상 및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KEA